

태국 보험급여 및 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요

◆ 보험급여 (Reimbursement)와 의료기술평가(Health Technology Assessment)

• 보건의료체계

- ✓ 태국 의료제도는 과잉 투자와 의료불평등을 야기했던 80년대 경제적 호황기를 지나 90년대 후반 경제적 침체기를 거치며 의료비 억제와 효율적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이 확립되었다.
- ✓ 그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전국민의료보험(Universal Health Coverage, UHC)은 공무원을 위한 Civil Servant Medical Benefit Scheme(CSMBS),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Social Security Scheme(SSS), 일반 국민을 위한 Universal Coverage Scheme(UCS)의 세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.

• 의료기술평가(HTA)

- ✓ UHC의 시행과 더불어 근거를 기반으로 한 보다 투명한 정책이 요구되어졌으며,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강조되었다.
- ✓ 태국 의료기술평가는 Health Intervention and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(HITAP)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. HITAP은 2007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며, 보건부의 정책 및 전략부, 의료보험제도 연구부 등의 공공기관과 WHO와 같은 타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재정을 조달한다.
- ✓ HITAP 의 의료기술평가 수행 결과는 UHC의 기본급여와 필수 의약품(NLEM) 결정에 반영된다. 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연구주제의 중요도 , 해당 기술의 효과성, 재정적 영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과정을 통해 결정된다. 비용-효과성을 포함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과학적 근거는 급여개발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.
- ✓ 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(NHSO)에서 해당 기술의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.